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제 39 - 20 호

2022년 5월 15일

- 청소년주일입니다. 푸른꿈 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늘푸른 사랑방과 젊은이 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 5월 마지막 주일(29일) '가정의 달 총동원주일'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어린이학교 캠프 여행이 19일(목)-20일(금) 포천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29차 임시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다음 주일(22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준 · 손민희 부부 (아빠생신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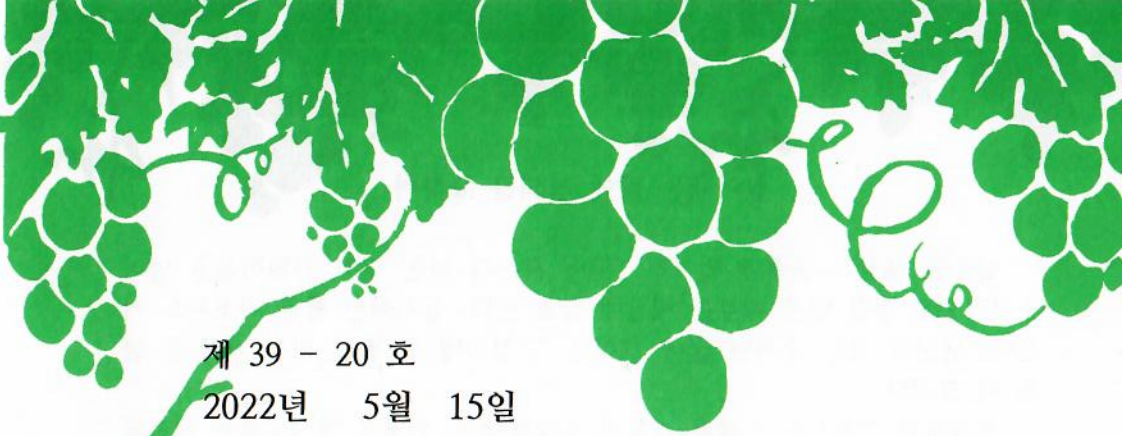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허진 · 안재욱 부부 (아빠생신기념)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살아내는 삶에 경의를 표하며

발전된 세상과 풍족한 먹거리.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적으로 들릴 만큼 배부른 세상에 살고 있다. 심지어는 평균 키조차도 커졌다. 남한의 모든 수치는 꿈에 그리던 '고깃국에 흰 밥을 먹는 세상'을 넘은 지 오래다.

지표로서 작용하는 수많은 것들이 성장해왔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선진국의 타이틀을 석권했으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되는 일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9년째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2022년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10년째 일지도 모른다. 이전에 봤다면 천국과 같은 풍요의 세상에 중고생의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무언가 무너졌다.

지식을 발달했고, 정보는 빨라졌다. 원하는 물건을 어디서든 사 올 수 있고, 손가락 하나면 온갖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가 무궁하다. 손을 뻗으면 닿는 감성들을 직접 제공하는 부모로서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라고 비명에 찬 소리를 내지르기도 한다. 여전히 무언가가 비어서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자신이 청소년의 눈앞에 있다.

우울감과 자살의 결과치는 돈과 성적으로 대표되는 지표가 이들의 삶의 가치를 보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삶이 지표로 환원되었을 때, 생명 또한 그 지표에 예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들을 통해 통계를 내고 값을 얻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 조선 시대 때에도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명확했고, 산업화 시대에도 명확했다. 그 나름의 가치가 공유되고 있었고, 여전히 가치는 지표보다 양질의 것으로 인정되어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 관심을 가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기도 했었다.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살아있을 이유는, 생명의 가치는 충분했다.

가치는 생존의 문제다. 감각적인 쾌락과 힐링이라는 이름의 휴식과는 다르다. 자아가 세상을 대면해서, 스스로 대면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 중심이 없는 상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었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같아져야 하는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 세상을 넘어서 그 중심조차도 백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청소년들은 살고 있다.

선교와 섬김

그리고 예수는 그 가치의 최우선 순위를 너에게 두고 있다. 어떤 평가를 받든지, 무슨 결과치를 들고 오든지 예수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지 않다. 오직 너에게 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 사랑에는 신의 기다림이 있었고, 굴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부활하며 너의 삶 또한 예수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고, 예수가 네 안에 있고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며 너를 초대했다.

그 사랑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는 덜 중요하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 목숨 걸고 살아내야 하는 가치를 얻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과거의 삶의 그림자가 종종 드리울 때도, 과거의 조각이 자신을 정죄할 때도, 예수에게 받은 사랑의 가치는 그 모든 굴욕보다 강했다. 끝내 죽음을 선택할 때도 삶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명을 품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 무거운 세상에, 무겁게 한 발자국을 더 걸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쉽지 않겠지만 네게 부탁한다. 살아다오.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가 너 또한 사랑하여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테니, 살아다오. 납처럼 무거운 세상에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의 생명이 날아갈까 조마조마하며 못 자국 난 양손으로 조심스레 우리를 자신의 심장에 품었던 예수가 괜찮다며, 괜찮다며 네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해줄 테니, 살아다오.

그 무거운 발자국의 어느 순간 예수를 마주했을 때, 네 꿈이 예수가 품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되뇌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그때 이야기해주렴. 너도 믿음의 선배들의 동역자라고.

'우리는 때로 권위적인 기성사회의 무게에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의 무게에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커다란 감정의 무게에 눌리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 깔린 달팽이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명을 짊어진 수레바퀴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고향의 짙은 흙내음을 맡으며, 다른 바퀴와 함께 어우러져, 달그락거리는 가락에 맞춰, 공동의 이상향을 향하여, 흥겹게 돌아가는 수레바퀴 말이다. 그 수레 위에 꿈과 사랑과 역사를 실고서.' -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청년

한주간의 말씀

“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로마서 15장

제목 :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김영화 권사

찬송 : 200 505 366

관찰]

1~6절 구약성경은 교훈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7~1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4~24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25~33절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밝힌 후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해석]

1~6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7~13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기쁨과 평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14~24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25~33 우리는 복음에 빛진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1~6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이 삶에 피어나게 합니다.

7~13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24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한걸음씩 나갑니다.

25~33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서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사랑방 박인혁입니다

이번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저의 대한 신앙심, 나를 돌아보는 짧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 고등학생 2학년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적으로 급하고 바쁘게 흘러가는 2022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신앙에 대한 마음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저에게는 부정적인 일만 만들어 냈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상처만 남는 일과 내가 생각했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것, 모든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잠잠해질 때 세례를 받은 것은 저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한참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질 수 있도록, 저에 대한 신앙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었던 저에게 오셔서 위로해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보여행을 갔다오고 나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매고 계속 해서 걷는다는게 힘들고 지치더라도 후배, 선배, 선생님과 함께 도우며 끝까지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내가 배워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며 도로를 걷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되기도 했습니다. 가는 기간동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고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 째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 점점 낮아지면서 조금이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도보여행을 최근에 갔다왔는데 다친 학생들 없이 무사히 갔다올 수 있게 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항상 교회에 힘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벗으며 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꿈사랑방 박인혁 학생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갈라디아서 5 : 1, 13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예레미야 31 : 34 인도자
93 다함께
다함께
진시우 학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누가복음 13 : 10-17 이나영 학생
- 성가대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푸른꿈사랑방
- 설교 “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설교자
- 응답의 찬송 91 다함께
- * 봉헌기도 옥정민 학생
- * 영광찬송 516(1) 다함께
-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진나우 옥수민 / 봉헌위원 : 최시원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가치관 형성의 시기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만능주의로 불리는 물질의 가치,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는 외모의 가치, 주지주의로 말하는 지적인 가치, 사람의 됨됨이에 가치를 두는 인격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18년간 병마에 시달린 여인 오늘 본문의 여성은 현대의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의료 비용만 축내고, 허리가 잔뜩 굽어있어 외모는 형편없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기에 만무하였고, 불편하고 고된 일상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마음의 상처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한 가치 예수님은 그녀를 눈여겨보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의 병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고통과 병으로 힘들게 살아온 삶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병에서 놓임 받은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백성복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박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섯살 강아지만은 작년에 자연예배당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고 올해 이어람 선생님 덕에서 베개의날을 했지만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원 효원공원과 행궁을 둘러보고 한옥에서 함께 자고 화성 성곽도 살짝 산책해보고 칠보공예체험도 했습니다. 행궁에서 멋진 무예24기 공연도 보고 미술관에서 작품도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걸어서 밤에 다리도 아프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잠을 좀 설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부모님께서 미리 챙겨주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집 음식이 맛있다고 우리엄마가 준비해 주셨다고 으쓱대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발마사지 다리마사지도 받고 이어람선생님 넓은 품에 안겨 잠들어보고 친구들이랑 교장선생님께 집에서 준비해온 매니큐어도 칠해드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머리를 빗겨주셔서 예쁘게 단장도 해보았습니다. 꾸러기들은 친구랑 함께 사워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둘째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ㅈㅈ이가 여기도 한옥이지요 합니다. 여기가 한옥이라고? 의아해하며 둘러보니 천정에 그대로 드러난 서까래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ㅇㅇ이가 집에서 이마를 동여매고는 화성에서 보고 온 무사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을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여름에도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또 여행을 가고싶답니다. 이번에는 꾸러기 넷이 함께 갔는데 여름여행 때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자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여행 다녀온 사이에 무림리에 아카시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숲에 들어가 향긋한 아카시꽃을 맛보았습니다. 향기가 있고 달달하지만 상추같기도 하답니다. 입을 따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놀고 꽃을 좀 따왔습니다. 주방에서 밀가루랑 전분이랑 기름을 얻어서 튀겨보았습니다. 튀길 때 나는 소리가 좀 무서웠지만 이어람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직접 아카시꽃에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에 넣어 튀겨서 먹어보았습니다. 맛있어서 다 먹고 싶었지만 꼭 참고 자연예배당 주변에 계신 어른들께도 나누어드렸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오월은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 주고, 존경해 주고, 기뻐해 주는 일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쑥쑥 올라와 맘껏 표현을 합니다.

이번주 하이라이트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비밀이 왜 이리 많은지 자꾸 말하려다 입을 막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서 궁금하기 그지없었지만 솔직히 예상은 했지요~

금요일, 그날은 온종일 수업 없이 부모님들의 두독한 자원봉사로 교사들은 쉼을 가졌습니다. 마음은 자꾸 학교로 향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

후일담으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며 일하시냐고아마 친구들이 신나서 엄마선생님들께 마구 쏟아 내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교사들은 즐겁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했습니다.

학교로 왔을땐 손터널로 맞아 주고 노래와 연주와 꽃과 편지로 사랑을 더 주어서 황홀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와서 함께 박수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마음으로 친구들을 키우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일주일의 가정학습 시간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잘 쉬고 멋쟁이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였습니다.

5주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심화 학습도 'z세대와 트렌드' 중 '트렌드'를 주제로 새롭게 시작하여 이번주는 이전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조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체육부가 기획하고 진행한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학년별여행 간식비가 걸려있는 만큼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특별히 '베팅 점수'가 추가되어서 자신의 학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도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며 더 많이 친해진 멋쟁이들입니다 ~ ^^

< 교사 : 박예나 >

봄에 내가 하는 일

오늘은 올 봄에 심은 작물에 대해서 써야겠다.

먼저 3월말에 완두콩을 심으려고 밭을 갈고 로터리도 했지만 서리가 오고, 얼고 해서 사월로 바꾸어서 사월 초순에 심었다.

그리고 이어서 감자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고, 상추와 그 외 여러 가지 썸거리를 심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씨앗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가 고랑에도 떨어지고, 서로 섞이고, 많이 뿌러지고 난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뿌리박고 잘 자라서 지금은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었다.

5월 초순에는 고구마를 심으려 강화도에 가서 고구마 모종을 사는데, 그곳 사장님이 고구마순을 예전과 다르게 심어 보라고 권하셔서 그대로 심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해서 잘못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올가을에 판가름이 날거라 생각하고 잘되지만 바라고 있다.

다음은 고추와 참외, 수박, 토마토를 심었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나도 오지 않아서 밭에 물을 뿌리고, 갈고 해서 겨우겨우 심었다. 지금도 여전히 비는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물을 뿌려 가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참깨와 들깨 모종만 심으면 봄철농사는 종지부를 찍고, 풀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비가 너무나 오지 않아서 땅이 아주 많이 메말라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작물들은 뿌리를 내려서 지들이 알아서 살아 갈 수가 있는데, 저번에 심은 옥수수에는 종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심어야 하나 하고 걱정중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간에 다시 심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올 한해는 지금까지 너무 가물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가물면 봄 농사는 참 힘들게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 여름에도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할 수가 있을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약 이주일 정도가 빠르다.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한 다더니 우리에게도 바로 바로 느껴지는 기온의 변화가 실감이 난다. 우리나라 사계절은 사라지고 겨울에서 봄이 온 듯 하다가 바로 여름이고, 가을이 온 듯 하다가 바로 겨울로 이어지니 날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도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실줄 믿으며 열심히 살자.....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시편 23편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새 정부를 위해 >

질병과 전쟁의 소식으로 세계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각 나라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이기적인 평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때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를 지지했던지 아니던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열과 혼돈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꿈이 있는 교회 >

- 교회 이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공동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지난 주일을 아버지주일이었습니다. 무림 사랑방의 어르신들과 공동체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지나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도회 시간마다 공동체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통해 신앙을 잘 지켜가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넓혀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고, 외부에 참여해야 하는 모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해 사랑방공동체가 좋은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